

InDesign QuarkXPress 아성에 도전

한글 플러그인 출시

인쇄출판 통합 솔루션 제공을 지향하는 어도비 시스템즈가 InDesign 한글 플러그인 제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일포트마에서 개발한 InDesign 한글 플러그인 버전인 InKorean의 발표는 일반 사용자보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게 더 의미가 있을 성싶다.

지난해 패키지의 형태로 판매된 'Adobe Creative Suite' 과 'Design Collection' 에 포함된 InDesign 제품의 경우 한글용 버전의 미 출시로 인해 'Collection' 제품의 가격만 올리는 천덕꾸러기 정도로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한가지 특이한 것은 푸대접을 받는 와중에도 적은 숫자이지만 매니아 층이 형성되어 간다는 점이었다.

InDesign이 한글 플러그인 작업이 채 들어가기도 전부터 매니아 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InDesign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글 플러그인이 발표된 InDesign의 미래를 말해주



지난 5월4일 실시된 'Adobe InDesignCS 인쇄출판과정 전략진출 기자회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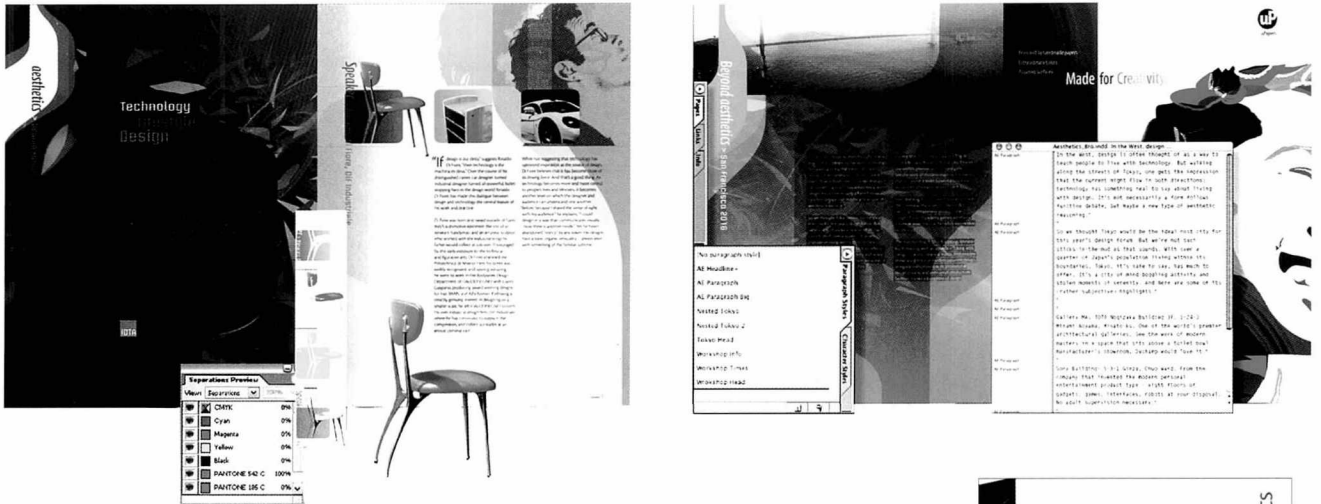
는 잣대라 할 수 있다.

한글화 버전 출시로 출판 시장 공략 가속

InDesign의 한글 플러그인 제품인 InKorean 제품은 OS X 버전 이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킨토시 제품과 Window 버전 두 가지가 출시되었다. InDesign 3.01 버전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 버전 제품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InDesign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매킨토시 제품의 경우 단축키를 퀵 제품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퀵으로 편집된 문서를 InDesign에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제작 환경 변화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Design에서의 문서 호환은 퀵 뿐만 아니라, 한글 워드, MS워드, 엑셀 파일 등도 가능하며 단, InDesign으로 제작된 문서를 퀵 프로그램에서 열람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정해 놓은 포맷대로 문서를 편집해 주는 Story Editor는 InDesign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요한 기능이다.

Story Editor를 사용할 경우 편집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기본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편집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반복 작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Story Editor 기능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은 InDesign 외에도 Page Maker, Mlayout 등이 있다.

Separations Preview 기능은 인쇄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능으로 화면을 통해 분판 될 필름의 형태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비 절감의 효과까지 불러 올 수 있다.

InDesign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Open Type Font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여타 폰트와 달리 Open Type Font는 별도의 Rip이 없이 고품격 서체를 출력 지원하기 때문에 매킨토시 내지는 PC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

InKorean은 InDesign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러그인 제품으로 그동안 한글화 작업 미비

로 인해 겪었던 사용자들의 불만을 잠재울만한 제품이다.

기존 InDesign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 중 하나는 금칙(禁則)이다. InDesign의 경우 한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마침표'나 '따옴표' 등이 한 단락에서 끝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다음단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곤 했다.

금칙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단락 내에서 행 머리 또는 행 말미에 올 수 없는 문자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을 말한다. InKorean에서는 행 머리 금칙과 행 말미 금칙 외에도 구두점에 매달려 있게 하는 달기 금칙과 분리금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용자가 필요한 법칙을 정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텍스트프레임 내에서의 문자 정렬이었다. 기존에는 문자가 텍스트프레임과 겹치는 바람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InKorean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정렬 규칙을 정해 두었는데 이를 활용하면 텍스트 프레임에 걸치는 문자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루비 기능도 새로이 선보였다. 루비

는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한자의 토를 달 때 사용하는 것으로 루비의 위치 크기, 색상을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가로쓰기뿐만 아니라 세로 쓰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가변폭문자를 지원하는 것도 InKorean의 큰 장점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본문용 서체는 개발당시 정 네모꼴의 틀 안에서 개발된다. 정 네모꼴의 틀 안에서 개발된다는 이야기는 일정치 않은 글자의 폭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격이어서 글자 사이의 간격이 서로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InKorean에서는 가변폭문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글자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이로 인해 보다 수려한 레이아웃을 가능케 한다.

InKorean 이외에도 본문 텍스트 내에서 여러 행으로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달 수 있는 '할주' 기능, 특정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한 '강조점 기능' 등 사용자 위주의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이명우 기자〉